

84年度

酪農業의 伏兵은 무엇인가

金 南 龍

우리나라의 酪農史는 20년에 불과하다. 勿論 6.25前에도 酪農業은 있었으나 本格的으로 農民들이 참여하고 또 乳製品이 生産되는등 活氣를 띠우기 시작한 것은 20年の 歷史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乳牛頭數가 26萬頭に 이르고 있으며 80萬톤의 牛乳가 生産되고 어느 農村에 가도 乾草牧場을 볼 수 있고 어느 산골작 商店에서도 牛乳와 乳製品을 살수 있도록 되었으며 牛乳와 飼料와 乾草를 운반하는 수송차를 어느 道路에서도 볼 수 있는등 많은 發展을 하였다.

農民들도 酪農을하여 所得을 높이고자 하는것이 꿈이라고까지 할 程度로 農民의 所得源으로서 다른 어느 農業, 畜産보다도 酪農을 첫째로 손꼽도록 되었다. 이것은 國民所得의 向上,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 酪農家들의 새 技術導入等 複合的인 영향에 기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酪農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即 60年代에는 粉乳小分業이라고 하여 外國에서 粉乳를 一部輸入하고, 國內에 流通되고 있던 年間 1萬余톤의 구호분유를 利用 小缶에 分割포장하여 “아기분유”라고 하여 판매 하던 옛이야기 같은 時期가 있었다. 結局은 그 당시 유일한 국산 牛乳生産業체인 서울牛乳協同組合에서 酪農家연명으로된 건의와 진정으로 國內 酪農業의 發展을 억압하던 粉乳의 輸入은 勿論 구호분유의 導入까지 禁止토록 되어 小分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또 美八軍에 納品하던 환원우유를 우리市場에 출하게 할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 또한 저지시켰으며 70年代에는 대 장군파동, 우유의 잉여초래, 유당과 카제인으로 모조분유의 제조등으로 酪農業은 큰 곤욕을 치렀던 것이다. 그런데 近年에는 國內 酪農基盤을 一時에 붕괴 할 수 있는 輸入自由化論 등이 대두되고 있다. 今年에는 어떤 問題들이 酪農業을 괴롭히는가를 生覺해 보기로 한다.

輸入自由化問題

酪農家들을 제일 불안케 하는것이 粉乳輸入自由化問題다. 現在 우리나라의 酪農業은 先進酪農國의 100~200年の 歷史에 比하면 보잘 것 없는 20年程度며 이제 전국도처에서 酪農熱氣가 한창 加하여지고 있는 狀態로 乳牛頭數 및 牛乳生産量이 前年對比 10~24%의 신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農村에서는 다른 어느 農事보다도 所得이 높은 産業으로 農民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現實이나 飼養技術, 乳牛能力, 또는 施設等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극히 初步的인 단계에 있다. 現단계에서 當局에서 말하듯 국제경제력 強化를 위하여 粉乳의 輸入自由化를 단행한다면 우리나라의 酪農業은 一時에 붕괴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日本과 EC國, 美國 外 酪農先進國에서는 乳牛頭數와 牛乳生産量이 限界에 이르러 증감이 年 1~2%以內에 머물고 있으며 또 牛乳를 計劃生産하고 있고 政府의 지원도 牛乳消費者를 爲한것, 酪農家를 爲한것 등이 있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牛乳를

먹을 수 있고酪農家들은生産費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酪農先進國에서는每年牛乳가 남아도는 상태이므로 남는 것은外國에 덤핑가격으로輸出하고輸入은極히制限하여自國의酪農産業을 보호하고 있다.自國의酪農家 보호를 위하여各者外國에乳製品의輸入을開放하도록壓力을加하면서도自國에서는輸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日本도美國으로부터乳製品輸入自由化의壓力을 강력히 받고 있으나日本의酪農産業保護를爲하여輸入을 개방치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當局에서도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乳製品의 어느 한品目이라도輸入自由化는 절대 없으리라고生覺되지만 만의 하나輸入이 개방된다면 우리酪農家를外國의酪農家の 제물로 바치는結果가 되는 것이다.勿論乳製品의輸入自由化論이 나오게 된데는 피치못할當局의事情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나라의酪農은全國土의 66%나되는山地를 효율적으로利用하여農家所得을 높여國力を 높이고 또 쇠고기自給度에도 큰 역할을 함으로 막대한外貨를 드러輸入되는 쇠고기의량을 감소시켜 쇠고기수입 대체산업으로서도 큰 몫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다른外國과 같이酪農産業을國家가 적극보호하여每年 되풀이되는輸入自由化論의 거론으로酪農家を 불안케하여酪農基盤이 흔들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乳製品의 製造許可權問題

乳製品의 製造許可는 畜産物加工處理法에 의하여農水産部가 其他食品은 食品衛生法에 의하여保社部가 許可를 하고 있다.即 食品許可가 二元化되어 있다. 이 二元化問題로 每年 部處間에, 또는 食品製造會社等에서 問題點을 들고 나오고 있어一元化作業이 또한 每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二元化되어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結論되곤하였다. 그러나今年에도 保社部와 一部 一般食品業界에서는乳製

品을 위시하여 모든 畜産物의 製造許可도 保社部로 一元化되어야 한다고 다시 主張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도 食品業界에서 保社部를 등에 업고 설치하고 있는데 反하여 農水産部 산하 畜産物製造會社는 소극적이고 또 農民들은 內容을 모르고, 農民團體들도 아직은 그 힘이 강력하지 못하여 積極的인 힘이 되지 못하여 農水産部 혼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乳製品의 製造許可를 農水産部에서 관장하여야 하는 큰 뜻은牛乳의 需給에 있다.牛乳의 生産量에 맞추어乳製品의 製造許可를 함으로써牛乳의 잉여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牛乳含有量이 많은 製品을 우선하고牛乳含有量이 적은 製品의 허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乳製品에 對한 바른 “맛”을 심어주어牛乳의 참맛을 알도록 하자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 畜産物 加工處理法에 의하여 農水産部에서 製造許可되는 加工乳(초코우유, 바나나우유등)에는牛乳가 70%以上含有되어야 하나 이것이 食品衛生法에 의하여 保社部에서 許可가 된다면牛乳가 10%以内 들어가도 許可가 되어牛乳需給上 차질이 생기며 또 소비자들은 70%以上 들어간 加工乳와 10%以内들어간 加工乳를 식별치 못하고 같은 것으로 알게되므로市場에서는 원가가 저렴하여 마진이 큰 10%以内의牛乳가 들어간 加工乳가 우위품목이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감시품목으로 묶여있는 乳糖은乳製品中에서는 調製粉乳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其他 製品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제하여 乳糖의 輸入을 極少化시키어今年度 全体 輸入量을 6천여톤으로 제한 하였으나 保社部 산하 食品業界에서는 자기들만의 소요량을 근 6천톤으로 고집하였으나 農水産部에서 우리나라의酪農産業保護를 위하여 83年度 물량보다 10%정도 상회한 全國소요량을 6천톤으로 결정한 것이다.

乳糖은牛乳中에 4% 정도 함유된 炭水化合物로 우유가 단맛이 나는것은 이 유당으로 인한 것이며 이 乳糖 5에牛乳 蛋白質인 카제

인1의重量比로 混合하면 탈지분유와 유사한성분이 되는 것으로 現在 유당의 국내유통가격은 kg당 900원, 카제인은 1,400원 정도이다.

農水産部에서 乳製品의 許可權이 保社部로 이관된다면 粉乳輸入自由化와 대등한 우리 酪農産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乳糖等の輸入

乳糖의 輸入量은 곧 國內産牛乳消費量과 直結된다. 그러므로 '79年과 '80年度 牛乳가 많이 남아돌때 自由롭게 輸入되는 수입자동승인 품목에서 감시품목으로 묶어 農水産部, 商工部, 保社部 3者가 합의한 物量만을 輸入하고 있다. 감시품목으로 묶이기전에는 年間 8천여톤이 輸入되었으며 年間輸入量이 前年對比 20%以上 증가되는 실정이었다. 감시품목으로 묶은 당년에는 4천톤으로 제한하였으며 앞에서 말하였지만 今年에는 6천여톤으로 결정되었다. 만약에 이 乳糖를 감시품목으로 묶지 않았다면 每年 1만여톤을 輸入하여 牛乳의 잉여상태를 초래하여 현재와 같은 것소 今年말 30만두, 牛乳生産量 80만톤이상이란 酪農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

을 것이다.

現在 粉乳輸入 自由化論이 대두되면서 乳糖도 이에 편승하여 自由化論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自由化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物量이라도 증가시키자는 것이 乳糖를 原料로 사용하는 食品會社들의 方針이다. 乳糖은 이미 自由化되어 있는 카제인과 混合하면 脱脂粉乳 또는 全脂粉乳와 유사한 성분을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 물엿 또는 전분을 혼합하여 더 저렴한 모조분유를 만들기도하며 牛乳를 원료로 하는 모든 食品에 牛乳代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食品會社에서는 더 많은 量의 乳糖를 輸入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에 열거한 세가지는 우리나라 酪農産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도 酪農家들은 이 사실을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열거한 것으로 우리 낙농가들도 우리 酪農界에 일고있는 현황을 직시하여 이에 대처해나가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데서 우리나라의 酪農産業發展의 장애요인이 하나 둘 해소되어 酪農發展은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이며 우리나라 國土의 66%나 되는 山地가 미래식량인 우유와 쇠고기의 보고가 되는 동시 農民들의 큰 소득원이 될 것이다.

(필자 본회 전무)

밝은 내일을 위하여

부정심리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전체의 질서와 조화는 아랑곳 없이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해 원칙보다는 변칙을, 진실보다는 거짓을, 노력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부정심리는 남의 질서를 깨뜨리려는 무질서심리, 돈과 권리이면 무슨 일이든 다 된다는 부패심리, 물가는 으레 오를 것이라는 생각하에 행동하려는 물가오름세 심리로 나누어 우리는 이를 삼대 부정심리 라고 합니다. 우리 낙농인은 삼대부정심리 추방에 앞장 서서 보다 살기좋은 밝은 내일을 위하여 솔선수범 합시다.

牛乳 불면증, 편두통, 관절염에 탁효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의 트립토판이 불면증환자와 편두통, 관절염등 만성통증환자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뱀플대학 막실로 케이 설 통증연구센터의 새뮤얼 쉘트저 박사팀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임상실험에도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한다.

연구팀은 먼저 트립토판이 정상적인 상태의 환자에게서 통증억제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0명의 성인을 대조군으로 나눠 트립토판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했다고 한다.